

- ▷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특별법 개정 후 첫 회의
- ▷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300명 추가 인정, 향후 신속심사로 인정되는 피해자가 빠르게 증가할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9월 25일)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신속심사 결과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총 3,284명이 지원대상자*가 됐다.

* 지원대상(3,284명, 중복제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3,223명) + 긴급의료지원(48명) + 진찰·검사 지원(36명) - 중복자(23명)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습기 피해구제위원회 제1차('17.8.)~제18차('20.9.16) 회당 평균 54.6명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시행으로 이번에 대폭 300명 지원

...

기타 자세항 사항은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